

# 순천시, 7월부터 전남 지자체 첫 산후조리비용 지원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 거주' 자격...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취약계층·둘째아 이상 산모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순천시가 전남 지역 최초로 모든 산모에게 산 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순천시는 오는 7월부터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조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순천에 출생 신고한 산모다. 출산 시 1회 지원하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첫째아 8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두 번째 출생아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기준의 50%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현대여성아동병원에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을 개소해 운영 중이다. 취약계층 및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이용료의 70%를 감면해 14일 이용 시 46만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은 산후조리비

용과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모라면 소득기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총 서비스 금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비용 또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다방면의 산후조리 지원책이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 산모의 안전한 회복과 출산가정에 경제적 안정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꿀 떨어지는 '곡성 멜론' 출하요~

이달부터 출시...당도 높아 인기 곡성군은 이달부터 올해 생산한 멜론(사진)을 본격적으로 출하한다고 17일 밝혔다. 곡성멜론 주식회사와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난 11일부터 멜론을 출하하고 있다. 멜론은 곡성의 대표 특산물로, 지난해에는 멜론으로는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했다. 곡성지역은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큰 덕분에 멜론 당도가 높은 지리적 장점이 있다. 지난해 172t을 수출하며 50만5729달러(6억

8000만원) 수출 성과를 거뒀다. 곡성군은 곡성멜론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6차 산업화에 힘쓰고 있다. 유통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비파괴 공동선별기, 유통물류비, 수출물류비, 포장재 등도 지원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다양한 멜론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산지 직거래, 기획전을 통해 농업소득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 광양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

### 7월부터 공공청사·주차장 36곳에 충전기 100대 설치

친환경 미래산업 도시를 내건 광양시가 전기차 보급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시는 5년 단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개선 계획'을 세우고 공공 충전시설 민간투자를 끌어왔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지역 공공청사와 공영 주차장 36곳에 전기차 충전시설 100여 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30대를 포함해 약 100여 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할 방침이다. 이 업체는 지난 3월 광양시가 공개 모집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운영 민간투자 사업자에 선정됐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24시간 상시 전화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충전기 유지·관리(A/S)를 제공하고 있다. 광양시는 성황스포츠클럽 외 36곳을 충전기 설치 대상지로 놓고, 한국전력 등과 현장 검토를 마친 뒤 7월부터 설치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석유 중심 수송체계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관리개선 계획은 ▲공용 충전시설 민간투자 ▲농촌 충전 인프라 공공투자 ▲충전시설 개선 ▲서비스 개선·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나뉘었다. 광양시는 민간투자 공모를 벌여 내년까지 도시 지역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운영할 계획을 세

웠다. 민간투자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오는 2027년까지 연차별로 환경부 국비보조사업 신청 등을 통해 충전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오랫동안 고장 난 채 방치되고 있는 충전기를 보수하고 전기차 충전기에 표지판, 비 가림막,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한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광양 전기차 등록 대수는 1620대로, 지난해 말(1199대)보다 35.1%(421대) 증가했다. 광양에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9만6538대로, 전기차는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양지역 전기차 충전기(공용·비공용)는 전기차 5대 중 2대꼴(41.0%)인 665대(공용 충전기 32대 포함) 설치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협약을 통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운전자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해서 충전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훈훈'한 GS칼텍스... 여수 저소득층 난방 개선

### '에너지 효율 민간공동사업'에 성금 6억원 전달

GS칼텍스(대표 허세홍)가 여수시,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전남 여수지역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GS칼텍스는 지난 16일 여수시청에서 이두희 GS칼텍스 생산본부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지역 저소득층 가구 에너지 효율 개선 민간공동사업 실행'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성금은 총 6억원이 전달됐다. GS칼텍스가 2023년 초 한국에너지재단에 기부한 100억 원 중 여수지역에 5억원을 특별 배정하고, GS칼텍스 임

직원 후원금에 회사 매칭 그랜트로 1억원을 추가 조성했다. 앞서 한국에너지재단은 매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해 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대상으로 벽체 및 천장 단열 시공, 노후 창호 교체, 바닥 난방 배관 공사, 도배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올해부터 국내 기업체로는 최초로 GS칼텍스가 동참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양적·질적 수준

확대가 예상된다. 이두희 GS칼텍스 생산본부장은 "우리 회사는 여수시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손을 맞잡고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GS칼텍스와 여수시, 한국에너지재단은 여수지역 저소득층 가구 에너지 효율 개선 민간공동사업을 통해 올해 200가구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가구씩, 5년간 총 6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순천 매실 500여t 응진식품에 공급



가공용 매실 판매 협약 순천시와 순천농협, 응진식품(주)이 가공용 매실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순천농협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기정 순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우승호 응진식품(주) 본부장,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 김미영 경제산업이사, 김도순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순천시와 순천농협, 응진식품은 협약을 통해 가공용 매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안정, 수취 가격 지지도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향상

을 기대했다. 우승호 응진식품 본부장은 "우수한 순천 가공용 매실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음료 개발 등 순천 매실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어려운 농촌 여건 속에서 지역 농민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은 "순천 매실 500여t 물량을 응진식품에 공급하게 됨으로써 순천 매실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순천농협 자체 마장과 농협경제지주 협력을 통해 매실 제품 판매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여수 응천~소호 연결 선소대교 버스 노선 신설

여수 응천과 소호를 연결하는 '선소대교' 구간에 버스 노선이 신설됐다. 여수시는 선소대교를 오가는 버스 85번을 지난 16일부터 새롭게 운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85번 노선은 화장동 차고지와 죽림지구, 부영여고, 장성마을, 선소대교, 응천지엘아파트, 응천포레나아파트를 순환형으로 오간다. 이 버스는 하루 9차례 운행하며, 배차 간격은 90~120분이다. 응천동과 소호동을 잇는 선소대교는 2018년 7월 착공해 4년 만인 지난해 6월 개통했다. 길이 1154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비대칭 곡선 주탑 사장교인 선소대교가 550m, 진입도로가 640m에 이른다. 밤바다를 수놓는 화려한 경관 조명이 인기를 얻어 야경 명소로도 떠오르고 있다. 선소대교를 오가는 대중교통이 없어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그동안 응천지구에서 소호, 죽림, 무산방면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생타터널로를 우회해 불편을 겪어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선소대교 운행 버스노선 신설을 운송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노선 개통 이후 운행상황을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 북내중학교 전교생과 교사들이 지난 9~13일 떠난 싱가포르 문화탐방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북내중 제공>

## 보성 북내중, 신나는 싱가포르 문화탐방

수자원공사 등 후원 전교생 참여 보성 북내중학교는 전교생이 지난 9~13일 3박 5일간 싱가포르에서 문화탐방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해외 문화탐방은 전남도교육청과 보성교육지원청, 한국수자원공사 후원을 받아 추진됐다. 참가 학생들은 싱가포르 수자원공사를 견학하고 한국 기술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마리나 베이 샌즈 건물을 방문했다. 싱가포르의 상징인 멀라이언 공원과 식물원(보타닉 가든),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찾아 현지 문

화를 체험했다. 김주하(1년)양은 "싱가포르 수자원공사를 견학하면서 물 수입국인 싱가포르의 수자원 확보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가뭄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물 절약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경애 교장은 "북내중 학생들에게 해외 체험 기회를 준 교육청과 수자원공사에 감사한다"며 "싱가포르에서 3박 5일은 학생들이 한 번 더 성장하고 교사는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고흥군 '마리안느·마가렛 봉사 대상' 후보 공모

7월 14일까지 추천 고흥군이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나눔과 섬김의 봉사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제3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 대상' 후보자를 7월 14일까지 추천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두 간호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나 지역 사회에 헌신·봉사한 자로 간호 부문과 봉사 부문으로 나눠 1명씩을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작년보다 2배 증액한 4000만원(부문별 2000만원)이다.

추천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중앙이나 시도 및 시·군·구 단위 각종 사회단체장, 20세 이상으로서 국내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인 이상 연서로 할 수 있다. 고흥군은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추진위원회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 9월 중 수상자를 선정하고 10월 시상식에서 봉사 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묵묵히 봉사하는 많은 분이 노고와 가치를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이 뻗어나가 자원봉사 참여 문화가 확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